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輪回와 無我에 대해

윤회와 무아에 대해 논리적으로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려한다. 윤회설이 비롯된 나라는 인도이다. 최초의 〈리그베다〉성립을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윤회설이 민간신앙으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天上)의 기쁨이, 그리고 육체의 해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사이로 성립이 추정되는 〈우파니샤드〉의 문헌에 조상에 대한 제사의례가 언급 되어있다. 윤회설의 처음 형태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의례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를 조령제(祖靈祭)라 칭했다. 조령제엔 남자만 참석했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나라에 태어나는데 그것을 '피드리' 라 불렀다. 조령(祖靈)이란 뜻이다. '피드리' 들이 모여 사는 곳을 '피드리카' 라 칭했는데 조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피드리' 가 '피드리카' 에 가기위해서는 조령제를 지내야 한다. 버터를 녹여 찹쌀로 지은 밥에 꿀을 바르는 제사음식이 '핀다' 이다. 제사를 함께 지낸 사람을 '사핀다' 라 칭했는데 이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제사를 소홀히 지내거나 딸만 있어 제사를 치룰 수 없는 영혼은 조상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프레타' 로 허공을 떠돌게 된다. '프레타' 란 굶주림의 상징, 아귀(餓鬼)이다. 이것이 최초의 3도 윤회설이다. '프레타' 의 개념이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에 성립된 〈가정경〉에 '프레타' 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회는 佛說이 절대 아니다
영혼, 경전 어디서도 못 찾아

인도의 고대 문헌은 저자가 없는 수세기동안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문화이다. 하여, 부처님의 생존시기에는 축생과 지옥이 첨가되어 5도 윤회설이 등장하는 것이다.

용수와 제바 보살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에도 5도윤회만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나가르주나(용수) 이후에 아수라(阿修羅)가 포함되어 육도윤회설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육도윤회설은 불설(佛說)이 아니며 영혼이란 단어는 불교의 그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설명할 부분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무아(無我)에 대해 설명할 차례이다. 부처님 생존 시에는 종교 사상가들이 많았다. 경전에 등장하는 육사외도(六師外道)가 그들이다.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 를 비롯해 '아지타' '고사라' '산자야' '프라나' '파쿠다' 가 그들이다. 이들은 인도의 전통 사상인 만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과 개인의 주체인 아트만(atman)에 색깔을 더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이다.

요약하면 마하비라는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주장하며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단식(斷食)등의 고행을 장려하고 있다. 살아서의 깨달음을 현신해탈(現身解脫)이라 하고 죽음 뒤에 영혼이 누리는 세계를 이신해탈(離身解脫)이라 하여 구경(究境)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다음은 아지타의 학설인데 물질요소는 육체로 집결돼 있어 육체가 해체되면 정신도 소멸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사라는 영혼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삶의 노력은 별개의 것으로 지어진 운명의 결과에 따라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운명론자였던 것이다. 불교측으로 부터 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의 사명외도(邪命外道)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다. 그 밖의 산자야, 프라나, 파쿠다의 학설은 생략한다. 이들의 주장과 학설에 대해 부처님은 침묵으로 부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에는 진리중의 진리 연기법칙(緣起法則)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此起故彼起)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此滅故彼滅)' 이것이 연기 법칙의 전부이자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육체의 주인공 이라는 아트만의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연 생(生)이요 인연 멸(滅)인데 무엇이 있어 생멸의 법칙을 벗어나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끝으로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의 무아부분을 옮겨본다. "과거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過去世有我) 그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是事不可得) 과거 세상에 있었던 내가(過去世中我) 금생의 내가 될 수 없다.(不作今世我)"

천신(天神)에게 들키면 공부가 모자란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간혹 옛날 고승들의 일화에 천신으로부터 공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상당기간을 단식을 하고 지내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고도의 은유가 숨어 있는 이야기이다. 중국 종남산의 도선율사가 천공을 받아먹었다 하고 조동종의 시조 동산양개선사의 제자 가운데 운거도응(雲居道膺:?~902)이 한 때 천공(天供)을 받아먹느라고 큰방에 들어와 공양을 하지 않았다 한다. 천상의 천녀가 인간 세상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안도 있다.

『선문염송설화』 861칙에 '밥을 보냈다' 는 '송식(送食)' 이라는 공안이 있다. 운거(雲居)가 동산(洞山)의 삼봉(三峯)에 있는 어느 암자에 살 때 여러 날의 큰방의 공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스승인 동산이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큰방 공양에 들지 않는가?" 운거가 대답했다. "날마다 천신이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동산이 말했다. "나는 그대가 제대로 된 사람인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따위 견해를 짓는구나. 저녁에 오라." 저녁이 되어 동산에게 갔더니, 동산이 "응(膺) 사리(스님을 일컫는 말)야!" 하고 불렀다. 도응이 "예" 하고 대답하니 동산이 물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는 말은 원래 육조 혜능 선사가 대유령에서 몽산에게 해 준 말이다. 동산의 이 말을 듣고 도응이 곧장 암자로 돌아와 좌선을 하고 앉았으니 그 다음부터 천신이 여러 날 찾아왔지만 도응을 볼 수가 없어 울고 돌아갔다고 한다.

〈설화(說話)〉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신이 밥을 보내온다(天神送食來)' 는 것은 우두법륭에게 새가 온갖 꽃을 물어다 바친 것과 같으니 거룩하다는 생각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라고 한 것은 만약 바른 맥(脈)을 밟았더라면 천신이 꽃을 바칠 길이 없고 사마외도(邪魔外道)가 숨어 엿볼 틈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는 것은 천신의 공양을 받을 때 이것이 순전히 선한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선과 악에 대한 어느 것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천신이 여러 날 왔어도 볼 수가 없었다' 는 것은 우두가 4조를 본 뒤의 일과 같은 것일까? 사실은 우두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지는 대홍보은(大洪報恩)이 '귀신의 소굴에 빠져 있는 것이다' 고 비판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천신이 밥을 보내와 그것을 먹느라고 큰방 공양을 빠진 도응을 동산이 불러 나무라듯 말한 것은 아직 공부가 미흡해 천신에게 들켰음을 꾸짖는 뜻이 숨어 있다. 공부가 끝까지 바로 된 경우에는 천신을 만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두법륭 선사가 우두산 남쪽에 선실을 지어 좌선에 여념이 없을 때 새들이 꽃을 물어다 선사에게 바쳤다. 그러다 4조 도신이 찾아와 우두의 공부를 점검한 뒤로는 새가 꽃을 물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한다.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는데 스승을 만난 뒤부터는 그런 상서로운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공부의 경지가 더욱 높아지면 좋은 일 궂은 일 등의 분별의 경계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귀신을 포함한 신류(神類)들도 중생에 포함되지만 사람이 수행이 깊어 선정에 들어 있으면 신류들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주종심선사가 40년을 선정을 유지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도량을 순찰하다 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수곽(우물)가에 쌀알을 흘려 놓은 것을 보고 공양주를 불러 야단을 쳤더니 그 순간을 포착 도량신이 조주선사에게 인사를 올렸다는 설화가 있다. 신류인 도량신이 조주선사가 항상 선정에 들어 있으므로 선사를 친견할 기회가 없었는데 쌀알을 흘려 놓은 것을 보고 꾸중을 하다 잠시 선정에서 나와 출정(出定)을 하였으므로 도량신이 여태껏 뵙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뵈었다는 이야기다.

타인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한 것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⑳ 보살의 발원은

發願品第二十七
菩薩思惟。一切眾生共有無量種苦。我當發於悲心成一切種智。滅一切眾生無量種共有之苦。菩薩見一切眾生沈沒無量無邊生死苦海得平等悲心。ㅌ 愚無知樂解脫者生放捨心。世間大苦聚生我勝悲心。菩薩思惟。我有悲心觀苦眾生未得菩提道。我云何使眾生得解脫道。菩薩思惟。一切世間我最少福。我今不能救濟眾生。菩薩思惟。我於三界眾生作大親友。而眾生常爲身苦心苦逼惱。我今名爲空惡活者。菩薩思惟。我生不能破世間苦。不能利益眾生我用受是身爲。菩薩思惟。我是一切眾生親友。我當養育於怨家所作大利益。菩薩思惟。一切爲生能?我作端嚴業。不使一眾生作不端嚴意。菩薩作是思惟。言利他者。求他人之相都不可得都如自己。何者爲他æ 是利己。

번역 | 발원품 제27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중생 모두 무량종류의 괴로움이 있지만, 나는 응당 자비심을 발하여 일체종지를 이루며 일체 중생 무량종류의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이 한량없고 끝없는 생사고해에 빠진 것을 보고 평등한 자비심을 갖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해탈을 즐거워하면 놓아주려는 마음을 내며, 세상의 큰 고통을 쌓지만 나는 수승한 자비심을 냅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자비심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관찰하니 보리도(菩提道)를 얻지 못하였구나. 내가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도(解脫道)를 얻게 할까"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이 적어서 내가 지금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삼계 중생들의 벗이 되리니 중생이 항상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헛되고 악하게 살았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태어나서 세상의 고통을 부수지 못하고 중생을 이익 되게 못했으니 내가 받은 이 몸만을 위해 썼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나는 일체 중생의 벗이라. 내가 마땅히 원수를 양육하고 큰 이익을 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내가 단정하고 엄숙한 업을 짓되 중생으로 하여금 단정하고 엄숙하지 못한 생각을 짓지 않게 하리라"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되, "남을 이롭게 하며 타인이 바라는 모습 전부를 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기리니, 어째서 그런가하면 타인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해설 | "보살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불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불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이들이기에 그렇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가락이 닮아도 닮아야 되는 게 부모자식 간의 일이다. '발원품(發願品)' 은 보살의 마음 씀씀이며 부처의 마음 씀씀이다. 보살의 모든 발원은 선해야 하며, 보살의 모든 발원을 발보리심이라 한다. 그리고 발보리심은 곧 부처의 마음이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러 찾아지는 삶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참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사람의 삶일 것이지만, 고백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보살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중생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렇다. 그들을 구제하지 못했을 때 보살은 자신의 헛된 삶에 눈물을 흘린다.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한 것일까 후회를 한다. 그리고 윤회에 다시 뛰어든다.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